

女大生의 衣服「디자인」嗜好와

興味間의 相關研究

—Color, Line, Texture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Women's Preference in Clothing Design and Interest

目 次

- I. 序 論
- II. 問題의 提起 및 理論的 背景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調查對象
 - 2) 道 具
 - 3) 調查期間 및 方法
 - 4) 資料處理
- IV. 結果 및 解析
- V. 結 論

建國大學校 家政大學
College of Home Economics
Kunkuk University

講 師 李 仁 子
Lecturer Lee, In Ja

〈Abstract〉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clothing researches by Flügel, Hurlock and Barr in the early 1930's have since been developed greatly. It has now been generally agreed that clothing is the symbol of one's personality and social status, for clothing is regarded as the second skin and a manifestation of one's emotional states as well.

Based on this consens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observe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one's clothing design preference—in line, color and texture—and interest.

For this survey, 200 college woman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were selected at random, and an interest-test standardized by prof. Jung Bum Mo and a questionnaire made of 20 items on the clothing preferences were given. The results as computerized and analyzed are as follows:

1. Line Preference

- a) Structural line: It is quite obvious that those like straight line are interested in fine arts, and curved line in physics.
- b) Out-line: Among tubular, bell and bustle of the silhouette, those like the bustle have shown particular interest in music, and the tubular in politics and business.
- c) Style: There is a salient tendency that those like a dressy style are much interested in music, and casual style in physics and physical exercise.

2. Color Preference

- a) Favorite color: Those like red, orange and yellow show a high interest in artistic activities and physical exercise, and black, grey and white in politics.
- b) Variety and combination of color: These have shown no relationship to the interest.

3. Texture Preference

- a) The touch: Those like the texture with the feeling of crisp and rough are interested in fine arts, and of soft and smooth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 b) Fabric surface: Those like naturalistic pattern, i. e. print of flowers, show much interest in music and literature, and plain fabrics in physical exercise.

I. 序論

근래 家政學에 있어서 衣類分野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衣服에 관계되는 社會心理的 要因의 중요성을 점점 깊이 느끼고 있다. 그것은 社會構造가 복잡해짐에 따라 옷의 役割도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즉 都市化한 社會에 있어서 衣服은 그 사람의 喜怒哀樂의 感情의 表現이 되며 性・職業・民族・社會的 身分 등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옷에 따라서 行動의 많은 變化를 가져오는 등 매우 중요한 無言의 通信手段¹⁾(nonverbal communication)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옷을 입고 있으므로 옷은 우리의 第 2 的 皮膚²⁾ (the second skin)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통하여 그의 됨됨이, 人間性, 社會的 身分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衣服의 社會心理的 作用이 중요시 되고 있는 오늘날 先進國에서는 衣服의 社會心理的 側面의 研究가 활발히 전개되어, 美國의 家政學會誌에는 수 많은 研究論文이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延世大 강혜원 博士의 學位論文에 관한 要約發表가 있은 後

3編의 碩士學位論文이 나와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 點에 관심을 가지고 本研究는 人間行動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하는 興味³⁾와 衣服을 연결시켜 調査·研究함으로써 衣服行態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心理的要因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目的 을 設定하였다.

(1) 女大生의 衣服「디자인」嗜好와 興味를 調査하여 兩者間に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가를 研究하고 (2) 衣類學科 學生 및 「디자이너」 또는 衣服「마케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指針이 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며 (3) 나아가서 이 分野에 있어서의 연구가 衣類學과 心理學間에서 더욱 촉진되도록 關心을 유발하기 위하여 本研究에 차수하였다.

II. 問題의 提起 및 理論的 背景

20世紀初부터 衣服에 관한 心理學的인 接近方法이 시도되었다. Ryan⁴⁾에 의하면, 옷을 입게 된 動機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實驗心理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Wundt(1916)와 Westermarck(1921), Dunlap(1928) 등에 의하여 다소의 異見은 있었으나 옷을 입는 本能的 動機는 수치감, 身體의 保護, 장식 原因이라는 學說이 발표되었다⁴⁾.

Rosencranz⁵⁾의 論文에 나타난 것 역시 이때부터 의복에 관한 心理學的 接近方法을 써서 의복의 動機, 值와 重要性에 관한 설명을 하여왔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非經驗的이고 非實證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고 본질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1930年代부터 옷을 입는 동기에 관한 社會心理學的인 實證的研究(Flügel, Hurlock, Barr, Macaulay 등)는 오늘날 실제적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心理學者와 社會學者가 共同으로 效果를 거둔 衣服에 관한 科學的 研究의 始初라 하겠다.

그 뒤, 이 方面의 研究는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세 分野로 나눌 수 있다⁵⁾ 그 하나는 Allport⁶⁾(1931) 등이 主가 되어 연구한 의복이 첫 印象 決定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고, 다음은 Rosencranz⁷⁾(1960) 등이 연구한 間接的인 研究方法(例: 여러 형태의 그림을 보이면서 性格과 의복과의 관계를 유도하는 方法)이며 셋째는 行動體系的인 方法(behavior system)이다. 이는 가장 최근의 방법으로서, 주로 어떤 社會階層 또는 어떤 性格의 사람들에 어떤 衣服에 대하여 어떻게 反應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各種標準化된 心理學的·社會學的 檢査와 의복의 嗜好, 象徵, 價值, 概念 등을 알아내는 方法이다. 예를 들면 Compton⁸⁾(1962)은 社會性과 옷감에 있어서 좋아하는 色과 「디자인」의 嗜好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社會性이 강한 사람은 짙고 어두운 色을 좋아하며, 社會性이 약한 사람은 밝은 色을 좋아한다고 발표함으로써 衣服色에 內在하고 있는 人間性을 지적하였다.

1973年度 美國의 衣類學分野의 學位論文要約集을 보드라도 17명이 이 系列의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⁹⁾ 1974年 美國家政學會研究誌에 발표된 Kelly¹⁰⁾外 네 사람의 共同論文 “의복과 社會參與에 관한 研究” 등도 모두 Behavior System Approach라 하겠다.

이에 本論文도 위와 같은 系列의 하나로서, 표준화된 興味検査와 衣服「디자인」嗜好와의 相關性을 調査・研究하고자 한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建國大學校(72名), 서울大學校(51名), 淑明女子大學校(49名), 梨花女子大學校(52名)의 家政大學에 다니는 2,3,4 學年中 225 名의 學生을 상대로 조사하여 그中 해답 및 성명 기재가 不分明한 것을 빼고 200名分만 치리하였는데 年齡은 만 19歲에서 23歲까지 이다. 對象을 家政大學生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質問項目에 대한 理解度가 높으며 의복에 대하여 비교적 關心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며, 2學年 이상을 選擇한 이유는 高等學校의 制服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의복을 선택하는 1學年期間이 지나 어느 정도 의복선택에 관한 主觀이 섰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2. 道 具

(1) 興味検査紙¹¹⁾ : 鄭範模教授 編, 高・大・一般用. 興味는 미술, 음악, 문학, 생물학, 출상학, 사업, 정치, 사회, 사무, 운동적인 흥미 등 10個의 영역이다.

(2) 質問紙 : 19個項目의 選多型 設問과 1個項目의 記入型으로 모두 20個項이다. 質問內容은 「衣服디자인이란 線, 型, 色, 質感의 整理이다¹²⁾」라고 하는 理論에 근거를 두고, 이 중에서 線을 대별하여 直線과 曲線 그리고 輪廓線(Silhouette)을 다루었으며, 色은 嗜好色, 配色, 色選擇의 多樣性 등을 내용으로 하였고, 質感은 웃감의 부드러움과 거칠음, 웃감의 紋様 등에 관한 것에 한계를 지어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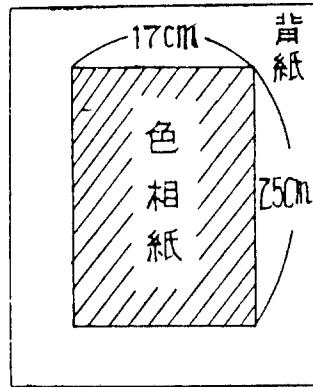
이들 質問項目은 1973年 5月 建國大學校 衣裳學科와 家政學科 3,4 學年 學生 100名을 상대로 Pre-test를 하여 검사한 것을 이 系統의 權威者들(衣服構成, 色彩心理, 實驗心理學專攻 등)의 助言에 따라 손질하여 1974年 5月 완성된 質問지를 가지고 同 大學 學生들에게 2回에 걸쳐 조사한 결과, 信賴性이 있는 問項에 대한 결과만을 처리하였다.

(3) 色相紙 : 日本色彩研究所 製作. 處理의 分散을 피하기 위하여 Munsell의 Color System에 의한 主要色 5個와 中間色 5個를 포함한 有彩色 10가지와 白・灰・黑色의 無彩色・

세 가지를 포함한 13개의 色相紙를 사용하였으며, 色彩記號 및 色名은 <表 1>과 같다. 색상지의 제시는 가능한 한, 心理的인 作用을 덜 받기 위하여 뒤에 灰色의 背紙를 하였으며 그 크기는 <그림 1>과 같다.

〔表 1〕 제시한 色相紙의 色名 및 色彩記號

색 명	기 호
빨 강 (R)	1—14—10
주 황 (YR)	5—16— 7
노 란 (Y)	9—19— 6
연 두 (GY)	10—18— 5
녹 색 (G)	13—16— 6
청 록 (BG)	15—15—16
파 란 (B)	17—14— 6
남 색 (PB)	19—15— 5
보 라 (P)	21—13— 5
자 주 (RP)	23—13— 7
흰 색 (W)	0—20— 0
회 색 (C)	0—15— 0
검 정 (J)	0—10—10



(그림 1)

3. 調査期間 및 方法

1974年 5月 20日부터 6月 20일까지 1個月間(色相紙를 제시함으로 가능한限, 午前의 快晴한 날, 어둡지 않은 講義室을 擇하였음).

興味検査紙와 質問紙를 同時に 배부하고 흥미검사를 먼저, 질문지를 후에 기록하도록 하 고, 興味検査가 끝날무렵 칠판에 색상지를 20分間 붙쳤다가 떼었다. 資料處理를 위하여 이를 꼭 기록하도록 지시한 후, 60分후에 두 가지 答紙를 짊어들였다.

4. 資料處理

興味検査는 檢査要綱에 따라 처리하여 原點數를 내어 百分率表로 比較 可能케 하였다. 질문지는 間項別로 같은 答을 한 사람끼리 모아, 興味検査 原點數의 平均을 내고 統計處理는 答項이 2個인 것은 意義度檢證을 내기 위하여 小標集의 平均의 差를 내는 t檢證을 사용하고, 3個以上 多項目인 경우는 F檢證을 하였다.

F檢證을 위한 變量分析結果 差의 意義가 많은 것 몇 가지는 附錄에 提示하였다.

IV. 結果 및 解析

1. 線과 興味와의 關係

(1) 衣服에 나타난 線

〈表 2〉에서 보면 直線을 좋아하는 사람은 128名이고, 曲線을 좋아하는 사람은 72名으로直線을 좋아하는 쪽이 훨씬 많다. 이는 青少年期의 의복선택의一面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흥미와의 관계를 보면 直線을 좋아하는 사람이 美術에 흥미도가 높으며 曲線을 좋아하는 사람은 物象에 흥미가 더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表 2] 좋아하는 衣服의 線과 興味와의 關係

흥미	線	M (평균치)		t	p
		직선 (N=128)	곡선 (N=72)		
미술	술	52.24	48.21	2.31	☆
음악	악	42.56	42.10	0.24	N. S
문화	학	43.55	42.83	0.28	N. S
생활	물	34.61	34.13	0.30	N. S
물상	상	22.51	26.28	2.15	☆
실습	집	29.99	29.51	0.35	N. S
경치	치	32.46	31.77	0.37	N. S
사회	회	39.96	41.06	0.75	N. S
사무	무	32.50	34.10	1.17	N. S
운동	동	28.29	28.78	0.30	N. S

☆ : $P = .02$ 수준에 의의 있음.

N. S : Not Significant(의의 없음)

(2) 輪廓線과 興味와의 關係

〈表 3〉에서 보면 좋아하는 윤곽선은 A-line이 135名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tubular 55名, bustle 이 10名으로 가장 적다. 이는 1954 Dior 가 A-line 을 내놓은¹³⁾ 이래 계속적으로 유행되어 우리 눈에 익은 silhouette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tubular(skirt 아래 부분이 곧은 것)를 좋아하는 사람은 流行에 개의치 않고 性格에 맞는 옷을 좋아함을 나타내며 bustle을 좋아하는 사람은 「리드미칼」한 線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 結果, A-line을 좋아하는 사람은 生物에 흥미가 많고 tubular를 좋아하는 사람은 實業, 政治에 흥미가 있으며 bustle을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과 運動에 흥미가 있다($p=.01$ 이 水準에 意義 있음).

〔表 3〕

좋아하는 Silhouette과 흥미와의 관계

흥미	시루에르		Bustle N = 10	F	P
	Bell (A-line) N = 135	Tubular (H-line) N = 55			
미술	51.41	49.85	51.50	1.26	N. S
음악	42.85	40.96	44.50	4.75	☆☆
문학	44.22	41.64	40.30	1.50	N. S
생물	34.90	34.02	31.30	4.66	☆☆
불상	25.53	25.18	26.20	0.35	N. S
실업	29.01	32.20	29.20	5.97	☆☆
정치	31.71	33.24	28.10	38.04	☆☆
사회	39.96	39.98	44.20	2.28	N. S
사무	32.56	34.22	32.80	1.60	N. S
운동	28.08	28.15	33.20	7.28	☆☆

☆☆ :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N. S : 의의 없음.

(3) Style과 興味와의 關係

〈表 4〉에서 보면 좋아하는 의복의 style은 casual(sporty)한 style이 155名, dressy 한 style이 45名으로 casual style이 3倍나 더 많다. 이는 요즘 대學生들이 Jeans 바지에 T-Shirt 차림이 보편화 하다시피 된 衣服습관에서 온 결과라고 해석된다. dressy 한 style을 좋아하는數는 적으나 그들은 音樂에 興味가 많음을 보여준다.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表 4〕

좋아하는 Style과 흥미와의 관계

흥미	Style		t	P
	Casual (Sporty) (N = 155)	Dressy (N = 45)		
미술	50.54	52.56	1.20	N. S
음악	41.19	46.62	2.59	☆☆
문학	42.70	45.42	1.29	N. S
생물	34.70	33.51	0.69	N. S
불상	25.99	23.11	1.62	N. S
실업	29.61	30.87	0.81	N. S
정치	32.51	29.82	1.32	N. S
사회	40.10	40.47	0.23	N. S
사무	33.28	32.22	0.69	N. S
운동	29.08	25.87	1.77	N. S

☆☆ :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N. S : 의의 없음.

3. 色과 興味와의 關係

(1) 色의 嗜好와 興味와의 關係

〈表 5〉를 보면 13가지의 주어진 色中 가장 좋아하는 色은 青, 亦이 제일 많고 黄, 보라 色이 제일 적었다. 이는 요즘 학생들의 衣服色 선택이 朴色 보다는 눈에 잘 되이는

分明한 色을 더 좋아하는 結果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연두, 청록은 各各 2,3名밖에 되지 않아 결파처리가 힘들어 緑色系로 묶어 처리했으며 보라색 역시 2名이므로 紫色에 포함시켜 처리했고 無彩色를 하나로 뛰어 전부 8個의 色으로 区分 처리하였다.

興味와의 關係를 보면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 文學에 興味가 많다. 이는 주황색이 가장 잘 나타나는 色이라는 點을 생각할 때 音樂, 文學 역시 表現하므로써 效果가 있는 領域이라는 共通點이 있다고 解析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色彩心理上 주황색은 가장 神經質이 일어날 수 있는 色이라 한다¹⁴⁾. 藝術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比較的 神經이 銳敏하다고 하는 것과 주황색을 좋아하는 것과의 관계를 發見할 수 있음을 매우 흥미있는 結果라고 생각된다.

白·灰·黑色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政治에 興味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黑色은 心理的으로 積極的이고 壓抑하며 權威를 나타내는 色이다¹⁵⁾. 비록 女子大學生일찌라도 政治에 興味가 있는 사람은 고운 色을 좋아하지 않고 無彩色를 좋아함은 참으로 흥미있는 結果이다.

赤色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 運動에 興味가 많음을 보여준다. 赤色은 實驗結果 脈搏이 뛰고 興奮하며 士氣가 일어나는 色이며 青年의 激情과 歡喜를 안고 戰爭하는 意慾을 고무하는 色이라¹⁶⁾ 한다. 승부를 다투는 運動選手가 赤色을 좋아함은 당연한 結果라고 생각되며 古代 투사의 服裝이 빨강색이었음 또한 想起할만하다.

[表 5] 좋아하는 色과 興味와의 관계

색 종 류	M								F	P
	빨 강	주 황	노 랑	녹 색	파 랑	남 색	자 색	무 채 색 (白·灰·黑)		
(N=39)	(N=15)	(N=10)	(N=14)	(N=31)	(N=43)	(N=11)	(N=37)			
비 술	51.69	52.47	54.50	43.50	47.30	49.86	50.91	51.54	1.34	N. S.
음 악	40.77	48.40	46.50	38.07	40.35	42.47	47.18	40.73	17.70	☆☆
문 학	42.56	46.40	36.50	45.86	43.28	43.88	42.18	42.70	24.06	☆☆
생 물	35.87	25.80	37.70	37.57	34.20	32.81	38.09	35.11	16.11	☆☆
물 상	25.64	23.67	29.60	27.07	25.13	24.03	26.16	26.30	6.98	☆☆
실 업	31.74	27.80	30.60	26.79	29.88	30.16	26.55	30.22	2.32	N. S.
정 치	30.59	32.53	28.60	30.57	31.08	32.96	27.09	33.92	103.01	☆☆
사 회	36.18	39.00	34.50	41.07	41.15	41.19	43.64	40.92	3.43	☆☆
사 무	32.79	31.67	30.90	34.64	34.10	34.04	34.00	31.57	1.42	N. S.
운 동	29.72	26.87	29.70	27.43	28.67	29.05	24.91	27.14	3.55	☆☆

☆☆ :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N. S. : 의의 없음.

(2) 配色 및 色選擇의 多樣性과 興味와의 關係

〈表 6〉에서 配色 및 色選擇의 多樣性에 관한 結果를 보면 同色系統으로 配色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160名, 補色配色을 즐겨하는 사람이 40名으로 同色配色이 4倍에 가까움을 알 수 있으나 이는 興味와는 相關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色을 選擇할 때 季節, 用途에 따

라 多樣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90名인데 역시 興味와는 關係가 없음을 보여준다.

Pearson¹⁷⁾이 조사한 性格과 色彩選擇과의 關係에서는 内向性의 사람, 우울한 사람은 좋 아하는 色이 몇가지 안되고 명랑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外向性인 사람은 여러가지 色을 多 樣하게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는 興味와는 相關關係가 없다고 해석된다.

〔表 6〕 配色습관 및 色選擇의 多樣性

색 종미	배색습관 M		t	P	색선택의 다양성 M		t	P
	동색배색 (N=160)	보색배색 (N=40)			용도·계절별 로다양 (N=110)	좋아하는 색 반 (N=90)		
미술	50.57	52.68	1.01	N. S	51.33	50.58	0.45	N. S
음악	42.31	42.83	0.22	N. S	43.34	41.29	1.11	N. S
문학	43.25	43.58	0.15	N. S	44.08	42.38	0.95	N. S
생물	34.38	34.88	0.25	N. S	33.70	35.42	1.13	N. S
물상	25.31	25.48	0.19	N. S	24.32	25.87	0.53	N. S
실업	29.36	32.03	1.64	N. S	30.30	29.40	0.68	N. S
정치	32.30	30.55	0.80	N. S	32.68	31.06	0.92	N. S
사회	40.42	39.23	0.72	N. S	40.00	40.40	0.30	N. S
사무	33.33	31.93	0.87	N. S	33.05	33.03	0.02	N. S
운동	28.78	26.68	1.07	N. S	27.17	29.80	1.71	N. S

N.S : 의의 없음.

3. 좋아하는 옷감과 興味와의 관계

(1) 質感과 興味와의 關係

질감 종미	M		t	P
	부드러운감 (N=89)	거친감 (N=101)		
미술	49.16	53.01	2.53	☆☆
음악	43.38	40.88	1.35	N. S
문학	41.39	44.71	1.87	N. S
생물	35.81	34.31	1.10	N. S
물상	25.17	25.89	0.47	N. S
실업	30.20	30.08	0.09	N. S
정치	31.20	32.11	0.53	N. S
사회	42.53	38.02	3.49	☆☆☆
사무	33.34	32.96	0.29	N. S
운동	27.98	27.99	0.01	N. S

☆☆ :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 : P = .001 수준에 의의 있음. N.S : 의의 없음.

<表 7>에서 보면 깔끔하고 거친감(Crisp, rough)을 좋아하는 사람은 美術에 興味度가 높고 부드러운 감(soft, smooth)을 좋아하는 사람은 社會奉仕등에 흥미가 있다. 이는 美術에 興味가 높은 사람이 直線的인 것을 좋아하는 結果였음에 비추어 생각할 때 미술에 흥미가 높은 사람은 날카롭고 예리한(sharp)面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옷감의 紋樣과 興味와의 關係

<表 8>에서 보면 무늬없는 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121名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기하학적인 문양 44名, 사실적인 문양 35名의 순서이다.

무늬없는 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運動, 政治 等에 興味가 많으며 뜻무늬등 事實的인 紋樣을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에 興味가 많은데 이는 silhouette에서 「리드미컬」한 bustle을 좋아하는 사람이 音樂에 興味가 많았음을 상기할 때 음악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곱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해석된다.

[表 8] 좋아하는 옷감의 문양과 흥미와의 관계

문 양 흥 미	M			F	P
	단 색 옷 감 (N=121)	프린트무늬 (N=35)	기하학적문양 (N=44)		
미 술	50.85	51.17	51.23	0.08	N. S
음 악	41.79	44.54	42.45	5.33	☆ ☆
문 학	42.61	44.43	44.36	9.13	☆ ☆
생 물	34.71	33.06	34.95	2.93	N. S
물 상	25.49	25.11	25.14	0.25	N. S
실 업	29.74	29.46	30.66	0.49	N. S
정 치	31.79	33.11	31.48	7.23	☆ ☆
사 회	40.30	41.11	39.11	2.24	N. S
사 무	32.79	32.46	34.23	1.24	N. S
운 동	29.59	25.31	27.33	17.74	☆ ☆

☆☆ :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N.S : 의의 없음.

4. 色, 「디자인」, 옷감중 보다 重點的으로 생각하는 것과 興味와의 關係

<表 9>는 참고적으로 옷에 있어서 色, 「디자인」, 옷감중 어느 것에 가장 重點을 두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본 實驗에 對한 結果이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色에 重點을 두는 사람이 106名, 「디자인」에 重點을 두는 사람이 62名, 옷감에 重點을 두는 사람이 32名의 순서이다. 이는 옷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色이고 옷감의 實業은 그리 중요시 생각치 않는 結果라 하겠다.

興味와의 관계를 보면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音樂, 美術등에 興味가 많으며 옷감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政治, 實業에 興味가 많다.

〔表 9〕 의복의 色, 디자인, 옷감 중 重點的으로 생각하는 것과 興味와의 關係

별인 홍미	별인			F	P
	色 (N=106)	디자인 (N=62)	옷감 (N=32)		
미술	50.44	52.77	49.34	4.17	☆☆
음악	40.78	45.71	41.44	31.93	☆☆
문학	43.93	43.76	40.41	21.76	☆☆
생활	33.99	34.85	35.34	1.93	N. S
물상	25.48	25.00	25.56	0.44	N. S
실업	29.31	29.61	32.38	3.43	☆☆
정치	32.46	30.24	33.56	48.37	☆☆
사회	41.00	39.13	39.50	2.05	N. S
사무	34.19	30.69	33.81	8.13	☆☆
운동	28.19	29.15	27.34	2.13	N. S

☆☆ : $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N. S : 의의 없음.

結論

本研究는 女子大學生들의 衣服「디자인」의 嗜好와 興味와의 相關關係를 알아보기 위한 것 이었다. 本研究의 目的是 다음과 같았다.

(1) 女子大學生들의 衣服「디자인」嗜好와 興味와를 조사하여 兩者間에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가를 研究하고 (2) 그 結果는 衣類學을 專攻하는 사람 및 「디자이너」 또는 의복판매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指針이 될 수 있는 情報가 될 수 있을 것이며 (3) 나아가서 衣類學과 心理學間에 이 分野에 있어서 장래의 研究가 促進될 수 있도록 關心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上記 目的中 (1)은 조사결과 $P = .01$ 또는 $P = .001$ 수준에서 각각 意味있는 關係를 나타냈다. 따라서 女子大學生의 衣服「디자인」嗜好와 興味와는 다음과 같은 相關關係가 있음을 結論的으로 要約할 수 있다.

1) 衣服「디자인」에 있어서 直線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美術에 興味가 많은 경향이 있으며 曲線을 좋아 사용하는 사람은 物象에 興味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P = .02$ 수준에 의의 있음).

2) 衣服의 silhouette 이 A-line을 좋아하는 사람은 生物에 홍미가 많고 tubuler를 좋아하는 사람은 政治, 實業에 홍미도가 높으며 bustle을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 運動에 興味度가 높다($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3) 옷의 style에 있어서 dressy한 style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에 많은 홍미가 있다($P = .01$ 수준에 의의 있음).

4) 衣服色에 있어서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 文學等 表現이 필요한 分野에 興味

가 많으며 神經이 銳敏한 편이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運動에 興味가 있으며 衝動的이고, 無彩色을 좋아하는 사람은 政治에 興味가 높고 위엄을 나타낸다($P=.01$ 수준에 의의 있음).

5) 옷감의 質感이 거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美術에 興味가 많으며 부드러운 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社會事業에 興味가 많다($P=.001$ 수준에 의의 있음)

6) 옷감에 있어서 單色을 좋아하는 사람은 運動에 興味가 많고 꽃무늬등 사실적이고 고운 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音樂에 興味가 많다($P=.01$ 수준에 의의 있음).

7) 옷을 고를 때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藝能系에 興味度가 높으며 옷감을 먼저 고르는 사람은 社會奉仕에 興味가 많다($P=.01$ 수준에 의의 있음).

위의 結果로써 目的 (2)는 충분한 情報의 提供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目的達成이 되었다고 보며 目的 (3)은 衣類學과 心理學間의 接近方法을 써서 조사연구한 結果이기에 장래 關心을 가지고 研究할 수 있는 分野의 促進劑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以上의 研究結果는 衣服「디자인」에 나타난 表現이 그 사람의 心理的要因인 興味와 相關關係가 있음을 검증한데 그 意義가 크며 앞으로도 이 方面의 많은 研究가 계속되어 좋은 論文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크다.

〈註〉

1. Mary Kefgen and Phyllis Touchie-Specht, Individuality(New York: MacMillan Comp., 1972), pp. 10—20.
2.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Boston : Houghton Mifflin Comp., 1968), p. 90.
3. 鄭範謨, 興味検査方法要綱, 「코티안 테스팅 센터」, p. 7.
興味의 意味: 흥미란 중요한 心理學의 要因이며, 여러 人間行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흥미란 어떤 종류의 활동에 대하여個人이 가지고 있는 快, 不快, 嗜好, 嫌忌, 受諾, 不受諾의 경향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흥미를 여러 方法으로 判斷, 測定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염밀하고 신뢰롭게 그리고 타당하게 여러 領域의 흥미의 정도를 짐작하는 方法은 實驗研究를 거쳐서 標準化된 興味検査에 의하는 데 合意하고 있다.
4. Mary Shaw Ryan,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New York: Holt, Rennhart and Winston Inc., 1966) pp. 41—42.
5. M. L. Rosencranz, "Soci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Clothing", J. of Home Econ., Vol. 57 No. 1 (Jan. 1965)
6. G. Allport,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New York: Henry Holt & Co., 1937), p. 500.
7. M.L. Rosencranz, "The Application of Projective Technique for Analyzing Clothing Awareness, Clothing Symbols, and Behavior,"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1960.
8. N. Compton,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 of

- Psychol., 54 (1962) pp. 191—195.
9. American Home Economic Association, 1973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Textiles and Clothing, (Washington, D.C.: 1974) pp. 30—38.
 10. Eleanor A. Kelley and others,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 Economics Research J., Vol. 2, No. 3, (Washington D.C., March, 1974), pp. 167—175
 1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 연구실, "동비검사", 고·대·일반용, (서울: 코리안 테스팅 센타) D, 1, 15.
 12. Mary Kefgen and Phyllis Touchie-Specht, 前揭書. p. 210.
 13. Hé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65) pp. 65—81.
 14. 權將, 權光明, 色彩教育(서울: 大黃商事, 1966) pp. 118—120.
 15. 權將, 上揭書 pp. 449—50. : 아이들의 그림에서 黑色을 많이 쓰는 아이는 성난 어머니의 두근움을 나타낸다. 계속적으로 黑色을 많이 쓰는 아이의 어머니는 病的인 히스테리의 상태이다.
 16. 小林重順, 色彩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1966) pp. 185—186.
 17. Lois Helman Pearson, "Teen-Agers' Preferences in Clothes,"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Dec., 1950), pp. 801—802.

参考文獻

- (1) 權將, 色名大辭典, 서울: 色彩研究所, 1964.
- (2) 權將, 權光明, 色彩教育, 서울: 大黃商事, 1966.
- (3) 今井彌生, "服裝選擇時における感情要因", 日本家政學雜誌, Vol. 19, No. 2(1968).
- (4) 金敏子, "就學前兒童의 衣服嗜好와 衣服行動"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3.
- (5) 鄭範模, 教育·心理統計的方法 서울: 培英社, 1964.
- (6) 山崎勝弘, 配色ノート, 東京: 光生館, 1971.
- (7) 小林重順, 色彩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1966.
- (8) 戸塚歌子, "被服意匠の色調や形態の表現と氣質との関連", 家政學雜誌 Vol. 20, No. 3(1962)
- (9)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3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Washington, D.C.: 1974.
- (10) Anspach, K., "Clothing Research in home Economics, 1925—58,"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1, No. 9(November, 1959)
- (11) Brockman, Helen L.,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 (12)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1971.
- (13) Haley, E.G. and Hendrickson, N.J., "Children's Preference for Clothing and Hair Styles,"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2, No. 3(March, 1974)
- (14) Hambleton, K.B., Roach, M. E. and Ehle, K., "Teenage Appearance,"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4, No. 2(February, 1972)
- (15) Hendricks, S.H., Kelly, E.A. and Eicher, J.B., "Senior Girl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0, No. 3 (March, 1968)
- (16) Horn, M.J., "Clothes and the Self Coneept,"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 Study of Clot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 1968.
- (17) Kefgen, Mary and Phyllis Touchie-Specht, Individuality, New York: The MacMillan Comp., 1971.
- (18) Kelley, E.A., Daigle, C.W., LaFleur, R.S. and Wilson, L.J.,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2, No. 3(March, 1974)
- (19) Pearson, L.H., "Teen-Agers' Preferences in Clothes."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December, 1950
- (20) Roach, M.E. and J.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 (21) Rosencranz, M.L., "Soci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Clothing Research,"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7, No. 1 (January, 1965)
- (22) Rosencranz, M.L. "Clothing Symbols," Clothing Concept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72.
- (23) Ryan, Mary Sho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부 록>

<1> Tubular를 좋아하는 사람의 政治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246.95	2	123.48	38.04**
內	638.55	197	3.24	
全 體	885.50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

<2>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의 音樂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1,429.26	6	283.21	17.70**
內	2,597.30	193	13.46	
全 體	4,026.55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

<3> 無彩色을 좋아하는 사람의 政治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675.49	6	112.58	103.01**
內	210.01	193	1.09	
全 體	885.50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

〈4〉 프린트 무늬를 좋아하는 사람의 音樂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內	206.56 3,820.00	2 197	103.28 19.39	5.33**
全 體	4,026.55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

〈5〉 단색옷감을 좋아하는 사람의 運動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內	548.50 3,045.30	2 197	274.25 15.46	17.74**
全 體	3,593.79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

〈6〉 디자인에 重點을 두는 사람의 音樂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內	985.91 3,040.65	2 197	492.96 15.43	31.93**
全 體	4,026.55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

〈7〉 옷감에 重點을 두는 사람의 政治興味度에 관한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化	自 由 度	變量推定值	F
間 內	291.92 593.58	2 197	145.96 3.01	48.37**
全 體	885.50	199		

☆☆ : P = .01 수준에서 의의 있음.